

Skennen'kó:wa ken?

Do You
Carry Great
Peace?

당신은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까?
스칸나 고와 강?

Hannah Claus
Melissa General
Shelley Niro
큐레이터 | CURATOR
Ryan Rice

제16회 광주비엔날레
16th Gwangju
Biennale

캐나다 국가관
Canada
Pavilion

이강하미술관
Lee KangHa
Art Museum

09.05.
- 11.15.
2026.



Skennen'kó:wa ken?

Do You
Carry Great
Peace?



Skennen'kó:wa ken?
Do you carry Great Peace?

Hen, Skennen'kó:wa ken? Ok ní:se?
Yes, I carry Great Peace. And you?

Hen
Yes

Skennen'kó:wa ken?—a Kanien'kehá greeting meaning *Do You Carry Great Peace?*—offers an invitation to consider peace not as an abstract ideal but as an ongoing practice of reciprocity, responsibility, and relational care. Bringing together works by Kanien'kehá:ka artists **Hannah Claus**, **Melissa General**, and **Shelley Niro**, the exhibition explores how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continue to shape critical understandings of humanity in relationship to land, governance, memory, and cultural continuity.

The exhibition is grounded in the *Kaianere'kó:wa* (*Great Law of Peace*), the living constitution of the Haudenosaunee Confederacy. Established through diplomacy and consensus, it articulates a philosophy of governance rooted in collective responsibility, respect for the natural world, and the ethical imperative to act with a “good mind.” More than a historical framework, the Great Law remains a living system of thought that is profoundly relevant today and offers enduring perspectives on coexistence, sustainability, and shared futures.

Within Haudenosaunee society, women hold essential responsibilities as life-givers, caretakers of the land, and custodians of peace. The practices of **Claus, General,** and **Niro** emerge from this ancient cultur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engaging questions of sovereignty, and practices of rematriation, ecological stewardship, and the advancement of intergenerational knowledge. Their works reveal peace as something carried forward—through language, territory, kinship, and acts of creative resistance, innovation, and interpretation.

Melissa General's photography and video work traces intimate relationships to Six Nations of the Grand River, where land and water become both witness and living archive. Her work reflects on memory, belonging, and the enduring presence of Indigenous peoples within their immediate and territorial homelands, affirming the inseparability of identity and place.

Hannah Claus's installation and photographic digital works draw upon Haudenosaunee systems of knowledge to illuminat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land, water, and all living beings. Referencing significant teachings such as the Dish with One Spoon “nation to nation” agreement and the Thanksgiving Address, her practice proposes ecological balance as both cultural responsibility and collective necessity.



Shelley Niro's photography and moving-image works reclaim enduring histories that have often been overlooked or displaced by dominant global colonial narratives. Through humour, historical reference, and powerful portrayals of women, community, and symbolic representations, she reimagines diplomacy, resilience, and self-determination while affirming the central and aspirational matriarchal role in sustaining Haudenosaunee cultural and political life.

Together, these artists offer distinct yet interconnected perspectives that resist singular narratives of Canadian and North American identity. Their works assert Indigenous visual sovereignty while extending contemporary conversations around governance, environmental stewardship, gender, and cultural vitality. Moving across

image, object, and space, the exhibition proposes art as a site where ancestral knowledge is continually renewed, remaining active—continuously informing the present while imagining more just and reciprocal fu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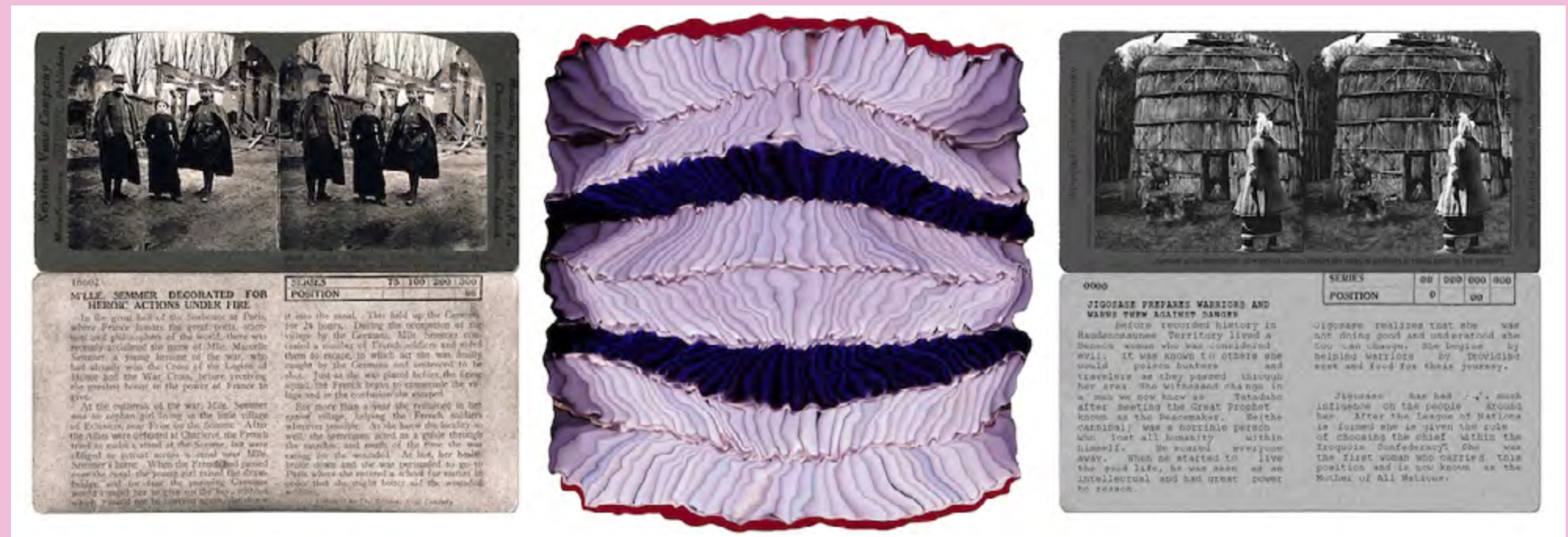
Positioned at the Gwangju Biennale 2026, *Skennen'kó:wa ken?* creates a dialogue between Haudenosaunee philosophies of peace, pressing global concerns, and Gwangju's enduring legacy of democratic resistance and renewal. It invites audiences to reflect on peace as a shared ethical responsibility that one carries through sustained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the land, and generations yet to come. ■

RYAN RICE, CURATOR
IN COLLABORATION WITH SUN LEE, CHIEF CURATOR,
LEE KANGHA ART MUSEUM

Page 2: **Melissa General**, *Nitewakenon (the place where I come from)*, 2018/2025, digital image on fabric, 57.5" x 160",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Page 3: **Hannah Claus**, *dish*, (detail), 2025, acrylic, aluminum, glass beads, thread, digital prints on Jetview film, PVA glue, 120" x 120" x 120", photo by Jean-Michel Seminaro.

This page: **Shelley Niro**, *Parallel Worlds of Women*, 2025, digital image, 33.5" x 33.5" each, Installed as triptych,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스간나 고와 경?》

(당신은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까?)



“스간나 고와 경?”

(당신은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까?)

“형, 스간나 고와 경? 오크 니제?”

(네, 저는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형!” (네.)

‘당신은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까?’라는 뜻의 가니엔게하어 (Kanien'kéha) 인사말 ‘스간나 고와 경?’(Skennen'kó ken?)은 평화를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관계를 이어 가는 실천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번 전시는 가니엔게하가 (Kanien'kehá:ka) 예술가 **한나 클라우스, 멜리사 제너럴, 셸리 니로**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원주민의 지식 체계가 땅과 정치 체계, 기억, 문화의 지속성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비판적 관점을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전시는 호데노쇼니(Haudenosaunee) 연맹의 살아 있는 헌법인 가이아네레고와(Kaianere'kó:wa, 위대한 평화의 법)를 토대로 합니다. 외교와 합의를 통해 확립된 이 법은 공동의 책임, 자연 세계에 대한 존중, '좋은 마음(good mind)'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를 바탕으로 한 정치 철학을 제시합니다. 위대한 평화의 법은 역사적 체계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지닌 살아 있는 사유 체계로 이어지며, 공존과 지속 가능성, 공동의 미래에 대해 변함없이 유효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호데노쇼니 사회에서 여성은 생명을 잇는 존재이자 땅을 돌보고 평화를 지키는 주체로서 핵심적인 책임을 맡습니다. 클라우스, 제너럴, 니로의 작업은 이 오랜 문화적·철학적 토대에서 출발해 주권의 문제와 함께, 리매트리에이션(rematriation: 조상 대대로 이어 온 땅과 문화, 지식을 원주민 여성과 모계 공동체를 중심으로 되찾고 회복하는 과정)의 실천, 자연환경을 책임 있게 지키는 일, 세대 간 지식의 계승과 발전을 탐구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평화가 고착된 상태가 아니라 언어와 영토, 친족 관계, 그리고 창의적인 저항과 혁신, 새로운 해석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멜리사 제너럴의 사진과 영상 작업은 그랜드 리버 식스 네이션스(Six Nations of the Grand River, 캐나다 온타리오주 남부 브랜트포드 인근에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호데노쇼니 여섯 개 네이션이 함께 거주하는 캐나다 내 최대 규모의 원주민 공동체)와 맺어 온 긴밀한 관계를 따라갑니다. 그녀의 작업에서 땅과 물은 증인이자 살아 있는 아카이브(archive)가 됩니다. 제너럴의 작업은 기억과 소속감, 그리고 원주민이 삶의 터전이자 영토인 고향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며, 정체성과 장소를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한나 클라우스의 설치와 디지털 사진 작업은 호데노쇼니의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사람과 땅, 물, 모든 생명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임을 드러냅니다. 클라우스는 땅과 자원을 함께 나누고 돌보아야 한다는 네이션 간 합의인 '한 그릇, 한 숟가락'(Dish with One Spoon)과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결과 감사의 정신을 담은 '감사의 말'(Thanksgiving Address)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태적 균형을 지키는 일이 문화적 책임인 동시에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제시합니다.

셀리 니로의 사진과 영상 작업은 지배적인 식민주의 서사에 가려지거나 밀려났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역사를 되살립니다. 니로는 유머와 역사적 소재를 활용해 여성과 공동체, 상징적 형상을 힘 있게 담아내며, 외교와 회복력,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또한 호데노쇼니의 문화와 정치가 이어지는 데 모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 줍니다.

세 작가는 서로 다르지만 긴밀히 연결된 관점을 통해 캐나다와 북미의 정체성을 하나의 서사로 규정하려는 시각에 맞섭니다. 이들의 작품은 원주민이 자신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스스로 표현하고 해석할 권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정치와 의사 결정 체계, 자연환경을 책임 있게 지키는 일, 젠더, 문화적 활력에 관한 동시대 논의를 확장합니다. 이미지와 오브제, 공간을 넘나드는 이번 전시는 예술을 조상 대대로 전해진 지식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장으로 제시합니다. 그 지식은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이며 지금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한편, 더욱 정의롭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2026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스칸나 고와 경?》은 호데노쇼니의 평화 철학과 오늘날 세계가 마주한 시급한 문제들, 그리고 민주적 저항과 쇄신을 이어 온 광주의 유산 사이에 대화의 장을 엽니다. 이 전시는 서로를 존중하고 땅을 돌보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삶 속에서 평화를 이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윤리적 책임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

라이언 라이스, 큐레이터
본 전시는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과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한 그릇 한 술가락”이라는 표현은 오대호 지역과 북미 북동부 지역의 원주민들이 발전시킨 개념으로, 거주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땅을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조약을 체결할 때 폭력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으며, ‘그릇’은 평화롭게 공유되는 땅을, ‘술가락’은 그 땅에 거주하며 그곳의 자원을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이용하는 개인들을 상징합니다.



Page 5: **Hannah Claus**, *reflections on time and space through material production (smoking cap)*, 2019, Inkjet on Entrada rag textured paper—digital reproduction, dimensions variable.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Page 6: **Shelley Niro**, *Canada*, 2023, from the series *From Brantford*, 2022–2024, pigment print on archival paper, 33" x 20.75".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Page 7: **Melissa General**, *at the beginning of the woods*, 2024, inkjet print mounted to aluminum composite, 33.75" x 60".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관람안내 | Visitors information

관람시간

화-일 10:00 - 18:00

- 휴관일 매주 월 - 추석/설 연휴기간
- 전시해설 네이버 & 유선 전화 예약
- 10명 이상 단체 관람 시 사전 예약

관람료 무료

Opening hours:

Tuesday – Sunday, 10 am – 6 pm

- Closed Mondays, Chuseok/
New Year's Holidays
- Docent-led Tours Available upon
reservation made online (Naver)
or by phone
- Advance booking is mandatory
for groups over 10

Admission fee Free



이강하미술관

광주광역시 남구 3.1만세운동길 6

Lee KangHa Art Museum

6, 3.1manseundong-gil, Nam-gu, Gwangju, Korea

Phone: +82 062 674 8515

Email: lkhart0207@gmail.com

Website: lkh-artmuseum.com

Instagram: leekhangha_artmuseum

Facebook: lkhartmuseum

OCAD University, located in downtown Toronto, is Canada's largest and oldest art and design university. It is a world-famous hub for art, design, digital media, research, innovation and creativity. **OCADU.ca**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오카드 대학은 캐나다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예술 및 디자인 대학입니다. 예술,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연구, 혁신 및 창의성의 허브로 국내외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OCADU.ca**

Commissioner: Ana Serrano, OCAD U President + Vice-Chancellor

Curatorial Coordinator: Kesa Smith

Curatorial Liaison: Ji-yoon Han

Design: Tom Chaggaris

Travel Coordination: Samadhi Alvarado

Marketing & Communication: Adam Weindels

Translation: kim art lab

General Assistance: OCAD University and Onsite Gallery staff

OCAD U AT GWANGJU BIENNALE
GENEROUSLY SUPPORTED BY
DAVID BI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Canada